

투명 페트병 의류용 섬유 재활용 '한뎛'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비대면 조사

전북도, 휴비스·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협약

쓰레기통에 버려지던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 의류용 섬유로 재활용되는 자원순환 생태계가 구축된다.

전북도는 24일 휴비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명 페트병으로부터 고품질 원사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생산설비를 갖춘 (주)휴비스는 도내는 물론, 국내에서 발생하는 페트병을 의류용 원사로 생산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는 안정적으로 페트병을 공급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도민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제도발굴과 안정적인 페트병 공급 체계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과 행정, 주민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도는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전북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투명 페트병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해 기업과 행정, 주민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투명 페트병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별



전북도는 24일 휴비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 분리배출 의무제도가 도입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의 필수 전제조건인 투명하고, 이물질 없는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도록 별도 분리배출제도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주택에 먼저 시작했으며 올 12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확대 적용된다.

도는 투명 페트병 전용 마대 보급 등 공동주택 분리배출 체계 구축을 완료했으며, 도내 전역에 자원관리도우미 1,200여 명을 배치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날 협약에 참석한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투명 페트병으로부터 고품질 원사 생산기술을 확보한 (주)휴비스 관계자를 격려하고, 폐자원의 고부가가

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폐자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이 일상속에서 적극적으로 분리배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도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종합 조사 방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돼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시각·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에 비대면 방식의 종합 조사를 활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장애인에게 보행차, 식사보조기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하는 대면 종합조사 방식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대면 조사로 인한 장애인 가정의 불편이 줄어들고, 조사 기간도 단축돼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종합조사 대상은 장애 유형별 특성, 조사항목, 조사 적격성 등을 고려해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

인으로 한정했다.

장애등록심사자료 등 기본 정보를 토대로 신청자의 장애 상태를 사전 파악하고, 장애 유형별 비대면 종합조사 매뉴얼을 적용해 조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애등록 심사를 완료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무료 지원을 신청한 시각,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전화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방문조사를 실시해 개별 장애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서기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분들이 보조기기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보조기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청년 나래 일자리 지원 확대

전북도, 170여명 추가 지원... 2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전북도가 '청년 나래 일자리 사업'을 위한 국비를 추가 확보, 수요가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도는 정부 2차 추경(2021년 지역우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서 청년 170여 명의 일자리 지원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추진하는 '청년 나래 일자리 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80명 규모로 진행했다.

하지만, 도는 정부 2차추경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예산을 추가 확보, 이에 수요가 많은 전주(78명), 군산(45명), 익산(28명), 완주(10명), 김제(8명)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초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우수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청년 나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청년 신규 고용 인건비의 80%, 월 최대 160만 원을 2년간 지원받는다. 다만, 참여 기업은 자부담 20% 이상을 추가해 청년에게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청년에게는 20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소득 보충과 함께 2년이상 근무 근무 경우, 최대 1,000만원 이내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한다. 자격증 취득, 교육비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하반기 사업시기를 고려, 오는 27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9월 중에 모집·선정해 10월부터 본격 사업에 돌입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8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참여기업 모집 대상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김제 지역의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초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 기업이다. 제품개발, 연구, 생산 및 관리, 마케팅, 디자인 등의 업무가 대상이다.

신청 및 문의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온라인 채용관(work-young.co.kr, 280-4130~5)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종합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도 전북의 품에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청년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건설업 등 3개 업종 등록 간소화

전북도가 오는 9월부터 건설업을 비롯해 건설 엔지니어링업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 1회 방문으로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One-stop)를 제공한다.

도는 그간 이들 3개 업종이 최대 4회에 걸쳐 등록신청과 금융기관 등을 방문해야만 신규등록할 수 있었던 것을 1회 방문으로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의 증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업 등록은 그간 신규 업종 등록 신청 시 허가신청(등록서류 접수)→주소지 자치단체 세무부서(등록면허세 납부)→금융기관(국민주택채권 매입)→허가신청(등록증 수령) 등 관련

기관을 최대 4회 직접 방문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등록 신청 시 협회 및 도청에 방문해 등록서류를 접수하면, 공무원이 위택스를 활용해 등록면허세 대행신고를 해주게 되고,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쳐, 결격사유를 발생하지 않으면 등록이 이뤄지는 등 절차가 1회(one-stop) 방문으로 단축된다.

더불어, 도는 등록신고에 대한 수리 절차가 완료되면 민원인에게 유선 안내와 함께, 등록증을 우편 수령 신청 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해주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2022년 저온유통 체계구축사업 공모

전북도가 '2022년 저온유통 체계구축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저온유통 체계구축사업'은 생산 및 가격변동 폭이 큰 원예작물을 저온 처리해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해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는 제도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냉설비·저온 저장시설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 수송차량 등을 지원한다.

저온 저장고 신규 설치는 130만원/㎡, 개보수는 신규의 50% 범위 내, 저온 선별장 신규 설치는 90만원/㎡, 개보수는 신규의 3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저온 수송차량은 신규 1억 1,000만 원, 개보수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자격은 연간 5억 원 이상 원예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김치 가공업체 등이다. 화훼류, 식량작물, 임산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최근 5년간(2017~2021년) 해당 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신규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군에 8월 말까지(시·군마다 사업신청 기간 상이)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지자체의 전문가 평가 및 농식품부 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확정한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도서관 및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독위원 한국스피치, 용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V,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업,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